

# 가을철, 농작업·야외 활동 ‘진드기’ 주의보

## 질병청 “쯔쯔가무시증·SFTS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작업 후, 고열·구토 증상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야외 농작업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9일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 후(잠복기)에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 발열과 오한이 있고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잠복기)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이 약 20%에 이르는 감염병이다.

2019-2020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459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459명 중 농작업 196명(42.7%), 농작업

과 야외활동 32명(7.0%)으로 나타났다. 감염 위험요인으로 농작업이 약 50%를 차지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환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중에는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철 야외에서 농작업을 할 경우 밝은 색 긴 소매·바지를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해 최대한 피부노출을 줄이고, 귀가 후 옷 세탁 및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농작업 후 2-3주 이내에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

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므로 의료진에게 농작업력 등을 알려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농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보건소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예방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말농장, 텃밭 작업자, 귀농·귀촌인 등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연계교육·홍보 실적이 매년 늘고 있는데, 2017년 2천457명, 2018년 3만6천201명, 2019년 5만4천679명, 2020년 6만636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은 가을철에 텃밭작업 등 농작업과 밤 줄기 등 임산물 채취 시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증상 발생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전에는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해 입고,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해야 하며, 즉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한다.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동수기자



“재활용품 넣고 포인트 적립하세요” 광주 동구가 관내 푸른길 산수마당에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카페 ‘동구라미’로 9일 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들이 관계자의 안내로 페트병·캔을 재활용 자동 회수기에 넣고 휴대폰에 포인트 적립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 ‘붕괴 참사’ 철거 이면계약 현장소장 혐의 부인

### 첫 재판서 “일반건축물 철거 지시할 위치 아냐”

광주 붕괴 참사 당시 이면 계약을 통해 건물 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9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이면계약 현장소장 김모(4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백술건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한술기업 현장소장, 현장 감리자와 공모해 ▲불리한 하부 보강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과다한 실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조치 미흡 등 과실을 저질러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철거 작업을 진행,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일반 건축물, 석면, 지장물 철거 등 3개 공사로 진행됐다.

전봇대 등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한술기업·다원이앤씨·거산건설에 하청을 줬다.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맡겼으나 다원 측이 백술건설에 불법 재하청했다.

50억원 규모의 일반건축물 철거는 시

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술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수사기관은 한술과 다원이앤씨가 공사비를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 계약을 맺은 뒤 백술건설에 불법 재하청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기관은 한술과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다원 소장이 실질적인 철거공법을 지시했다는 재하청업체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원이앤씨 측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밀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한술기업 대표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 “영업제한 풀어달라” 광주 자영업자 야간 차량시위

### ‘거리두기 보이콧·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등 현수막 부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자영업자들도 전국 동시 차량 집회에 동참했다.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서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약 1.4km 구간을 차량으로 행진하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을 규탄했다.

차량 행진에는 49대의 차량을 동원하기로 계획했지만 뜻을 함께하는 광주 전역과 일부 전남 지역 자영업자들이 찾아

오면서 예상보다 많은 차량이 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차량에 ‘거리두기 보이콧’이나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등의 현수막을 붙이고 시청 인근 도로를 달렸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허정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수칙에 순종하고 잘 따랐지만, 그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부의 모든 방역수칙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치사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도 마무리 단계”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드(with) 코로나’ 정책도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자영업자들도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는 전국 동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조태훈기자

## ‘부동산 갈등’ 노인 목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나누시 자신의 집에서 B(80)씨와 싸우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질식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

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사 사망하게 했다.

이후 B씨가 타고 왔던 트럭터를 멀리 옮기고 아들의 차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빈 창고에 시신을 숨겼다. 이날 밤 늦게까지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B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수차례 찾아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진술했다. /김동수기자

## 불법튜닝 오토바이 23대 ‘철퇴’

광주 남구가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운행한 오토바이 23대를 적발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백운광장 교차로 인근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공명을 내거나 LED 불법 개조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 번호판 봉인을 개조한 오토바이 등 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남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생존권이 달린 점을 감안해 행정조치 대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조태훈기자

#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 급매 전문

**[ 상가건물 ]**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 매가:6억8,000(시세50%)
- \*\*\*기든형갈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이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